

2002-03-23

발신: 총여학생회

수신: 새터 내규주체 연석회의(가)에 오신 여러분들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부활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0년도에 연세 안에는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이하 연성뿌연)”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당시 연세 내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갔던 연성뿌연은,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이하 반성폭력 학칙)”의 존재를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여기에 학생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 연성뿌연의 활동은 계속되지 못했고, 학내에서 공동으로 성폭력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이, 혹은 어느 한 단체만이 움직여서는 결코 해결될 수도, 그리고 효과적인 담론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끊임없이 희화화되거나 선정적인 문제로서만 다루어지는 현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변화는 한없이 요원한 일로 그쳐버릴 것입니다. 이에,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부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02년 3월 현재까지, 새터 내규주체 연석회의(가)라는 자리를 통해 새터 시기의 성폭력의 문제를 함께 논의했고 성폭력 사건의 예방,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작업의 이행까지를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문제는 새터라는 특정한 시기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사회 그리고 연세라는 공동체 내의 가부장적 이성애중심의 문화 속에서는 언제나 존재해 온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터라는 자리를 통해 올 한해의 반성폭력 운동의 시작을 함께 해 온 새터 내규주체 연석회의(가)의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로의 변화를 통해, 이후 연세 안의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2000년 반성폭력 학칙에 있어 학생참여보장을 명시적으로 이끌어낸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만이 아닌 연세 성원 모두의 참여가 있을 때 성폭력 없는 연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 없는 새터를 위해 노력해왔던 그 에너지들을 모아서 성폭력 없는 연세를 만들기 위해, 연성뿌연을 통해 보다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 봅시다. 현장활동, 과반·동아리 MT, 각 단과대 별 상황에 맞는 자치규약의 제정이나 현재 제정되어 있는 반성폭력 학칙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 연성뿌연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반성폭력의 흐름은, 새터 시기에 한정된 활동을 했던 새터 내규주체 연석회의(가) 보다는 더욱 두터울 것입니다.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피해자나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차에 걸쳐 강조되어왔듯이, 성폭력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차원의 문제이며 이는 곧 생활 영역 곳곳에 침투하여 끈덕지게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위에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에 함께 합시다. 그리고 연성뿌연을 통해, 보다 풍부한 논의들을 만들어 내봅시다.